

풍요의 바다·빼어난 경관...새롭게 일어나는 마을

전복·광어 생산액 150억 웃돌아
마을 역사 60년도 안됐지만
선후배 밀어주고 당겨주며 화합

도시민 '전남어촌탐구생활' 체험에
감성돔 낚시와 '차박 여행지' 인기
공동작업장 건립·선착장 개선 시급

진도군 근내면 신기마을 막내 천경석(36)씨의 16t 어선 '아발론호'는 오늘도 새벽 바다를 가른다. 신기마을에 터전을 잡은 지 3년 만에 천씨의 전복 양식장은 150칸 늘린 550칸이 됐다. 가두리 1칸은 전복 50kg 정도를 출하한다.

4년 전 고향 완도를 떠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천 마을이 지닌 '기회'와 '온정' 때문이었다. 마을 자랑을 반드시 기사에 실어줄 것을 재차 당부하는 것을 보면 영락없는 '신기맨'이다.

"신기어촌계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어 다른 지역에서 온 어촌계원들이 많아요. 선후배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며 양식장을 꾸려나가고 있죠. 신기마을 앞바다는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천연 갯벌 덕분에 전복 폐사율이 훨씬 낮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 기회를 준 신기마을에 항상 고마울 따름입니다."

90가구 150여 명이 사는 진도 신기마을에서는 42%에 달하는 38명이 어업에 임하고 있다.

마을 역사가 60년도 채 되지 않은 이곳 신기마을은 '시작'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

최근 10년 동안 이 마을에 18가구가 동지를 틀었다.

신기어촌계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는 힘을 합쳐 올 6월 '전남어촌탐구생활'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도시민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어촌에서 먹고 자며 귀어를 체험해왔다.

도시민들의 신기어촌 경험은 '체험 삶의 현장'을 방불케 한다. 신기어촌계에서는 대중이란 말이 없다. 참가자 모두 작업복을 갈치고 양식장에서 물고기 밥을 주고 전복을 따며 어민의 생활을 몸으로 익혔다.

어민에게 삶의 터전인 이 마을은 외지인에게는 자신만 알고 싶어 '숨어서 찾는다' 휴양 명소가 됐다.

호랑이 등마루를 닮은 범바위 등산로는 신기마을의 대들보 같은 존재다. 범바위 등산로는 신기와 나리, 죽전 3개 마을을 아우르고 있다. 주민들은 10년 전, 마을이 생겨날 때부터 만들어졌던 오솔길을 복원하며 등산로 복원에 나섰다.

무조항부터 신기항까지 6.5km에 걸쳐 펼쳐진 이 길에서는 남대문, 촛대바위, 개바위, 사랑바위 등 기암괴석들을 만날 수 있다. 생김새가 다른 바위들



신기마을은 6.5km에 달하는 범바위 등산로가 에워싸고 있다. 세방낙조에 버금가는 일몰 풍경을 지닌 이 마을에는 연말까지 100여 세대 규모 귀어·귀촌 단지마을이 조성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마다 품고 있는 이야기도 다채롭다. 세방낙조에 버금가는 일몰 풍경을 지닌 전망대는 사진작가들의 단골로 점찍어졌다.

신기마을 무조항 들목에는 김정숙(60)씨의 노후의 꿈을 실은 캠핑카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곳 선착장에선 다도해 해상에 병풍처럼 늘어선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차박'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김씨는 "4년 전부터 주말마다 무안에서 이곳으로 차박 여행을 왔더니 신기마을을 제2의 고향 삼고 싶어졌다"며 "낚시대를 드리울 때마다 탁하니 잡히는 감성돔과 봉장어는 그날의 좋은 저녁거리가 돼준다"고 말했다.

함께 여행을 떠난 가족·친구들에 특별한 밥 한 끼 선물하고 싶다면 선착장 인근에 위치한 '자연과 민속' (무조길 19)을 추천한다.

김판용(70)·오삼숙(69)씨 부부가 20년 넘게 지켜온 이 집은 오방색으로 물들인 전통 연교 처마 끝에서 은은하게 울리는 풍경 소리를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전날 전화 예약을 하면 제철 수산물로 차려진 푸짐한 한 상을 한 사람당 2만5000원에 받아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임금님 진상품'이었다는 송어 어란도 맛볼 수 있다. 송어알을 자연 건조시켜 만든 어란은 짭조름하고 쫄쫄쫄쫄 식감이 쌀밥과 궁합이 잘 맞는다.

신기마을의 주요 수입원은 전복과 광어로, 생산액이 150억원을 웃돈다.

신기마을 앞바다 전복 가두리 양식장은 6000칸 규모(20ha)로, 연매출 3억~4억원을 찍는 어업인도 있다.

신기어촌계는 귀어 희망자가 정착금이 많지 않더라도 전복 양식장 지분을 '주주'처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복 가두리 양식장 30칸을 시작하는 데 7000만원 정도 든다.

한과가 물러간 4~5월 신기 앞바다에는 송어떼가 물러와 어선을 채운다. 연간 20t이 잡힌다.

이곳 송어 시세는 kg당 6000원 안팎이지만 가공 시설이 없는 탓에 절반 가량 버려지고 있다. 여름에는 반건조 가공해 온라인 판매를 벌이고 있지만 생산량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30대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장을 맡아온 윤재암(62)씨는 "우리 마을에 공동작업장이 마련되면 사시사철 송어를 가공·유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년 넘는 물두 끝에 마을 상수원을 개발할 정도로 마을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그는 "20여 년 전 조성된 신기항은 항구가 좁은 데다 얕은 수심에 갯벌이 차오르는 탓에 항구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우리 어촌계 어선 36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착장 개선공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옥한 땅·풍부한 어장·끈끈한 정 가득한 마을 몇시간만 머물러도 강한 결속력 느낄 수 있죠"

김성석 어촌계장

"신기마을의 장점은 '비옥한 땅', '풍부한 어장', '끈끈한 이웃의 정'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마을은 해안가에 자리했음에도 평지가 많아 고추와 대파 등 밭농사가 쉬워요. 거센 조류와 특유의 지형 덕분에 송어와 농어, 민어 산란지라도 알려졌죠. 신기마을에 몇 시간만 머물면 이 마을의 강한 결속력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김성석(60) 신기어촌계장의 말이다. 한 시간을 넘어서까지 마을 이야기를 계속할 정도로 그의 '신기 사랑'은 유명하다.

마을 역사가 짧은 탓에 주민 한 명 한 명이 마을 조성 당시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 마을에 처음 들어와 길을 뚫고 밭을 일구던 1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마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다섯 살 때 신기마을로 온 정선숙(57)씨의 부친은 마을 입항조(入鄕調) 하동정씨 고(故) 정영재 옹이다. 말하자면 정씨는 신기마을 2세대인 셈이다.

어릴 적 그의 마을에 대한 추억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 마을은 이웃이 상을 당하면 장례가 끝날 때까지 결을 지키던 문화가 가장 최근까지 이어져 왔어요. 연교 없이 황무지에 터를 잡은 새내기들이 의지할 곳은 이웃뿐이었기 때문이죠. 주민들 단합이 좋아서 지난해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도 어촌뉴딜 300 공모 사업에 나하 할 것 없이 매진하고 있어요. 신기 앞바다를 제집처럼 누비던 상갱이(상갱이) 때는 아직도 그 모습을 보이며 고단한 어민 생활을 달래주곤 합니다."

'새롭게 일어난다'는 뜻을 지닌 신기마을은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다.

연말에는 마을 회관 옆 1만4000여 평(4만6307㎡) 부지에 새로운 귀어·귀촌 단지마을이 조성된다.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이 주택단지는 100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다. 신규 마을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의 3명 중 1명 꼴은 40~50대 도시 은퇴층이다.

휴양을 즐기며 노년을 즐기려는 이주민을 위해 마을 주민들은 요양보호사 등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기마을 막내 천경석씨의 어선 아발론호는 오늘도 살이 꽉 찬 전복으로 만산이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최연수